



2026. 7. 8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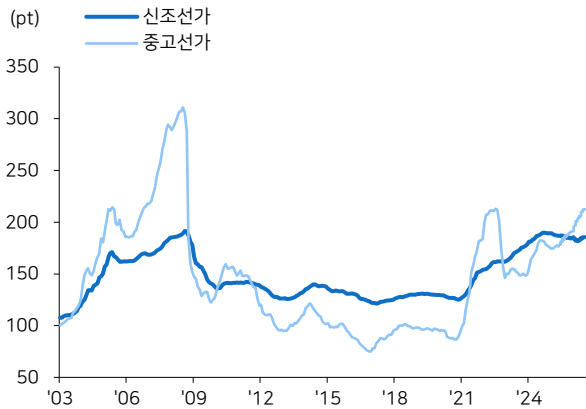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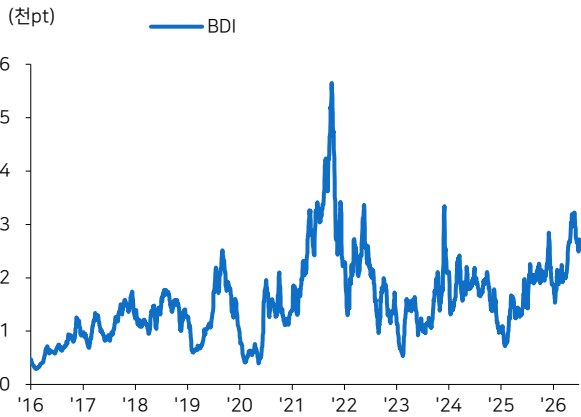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4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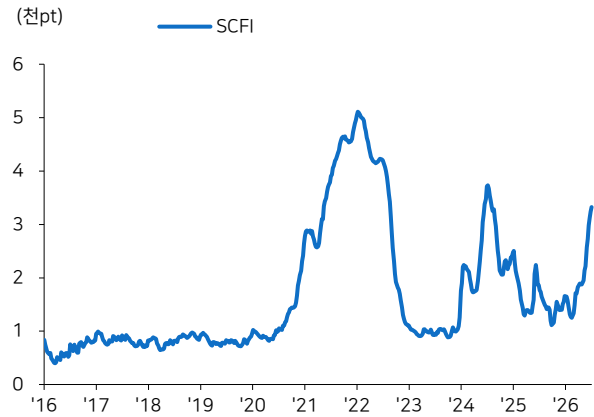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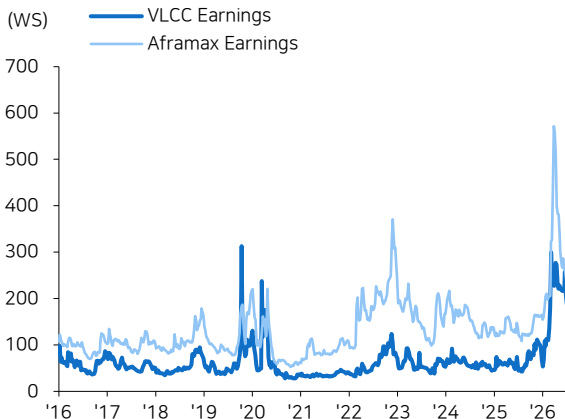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97.0p (+8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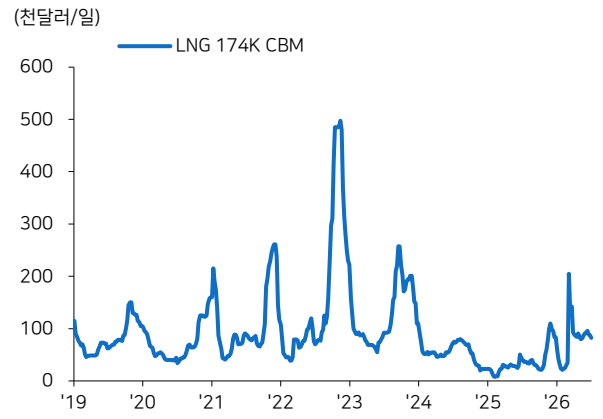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326.9(+87.2 WoW)



VLCC Spot Rate 187.9WS (-20.8p WoW)



LNG Spot 운임 82.5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미국 정부,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 급유함 타진...첫 정보요청 (연합뉴스) <https://zrr.kr/QC6kPe>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함정 건조·설계 역량에 관한 정보 요청(RFI)을 공식 발송하며 실무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됐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 3사는 건조 실적과 설계 인력 등 조선소 역량을 담은 회신을 전달했다고 전해짐.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건조 요청과 맞물려 미국 내 함정 관련 법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 검토 단계로 파악되며, 향후 한미 간 본격적인 조선업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말레이시아 다목적함 도입사업 출사표...17개국 경쟁 (더구루) <https://zrr.kr/1eSgVZ>

HD현대중공업이 말레이시아 해군의 차세대 다목적지원함(MRSS) 획득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튀르키예의 STM,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 17개국 기업들과 수주 경쟁을 벌인다고 보도됨. 말레이시아 해군은 총 3척 도입을 목표로 현재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자국 내 건조 조건과 함께 과거 튀르키예와 체결한 방식과 유사한 정부 간(G2G) 계약 형태로 파트너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약 11,000톤급 대형 다목적지원함인 HDL-10000을 앞세워 현지 왕실 및 군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짐.

거제시, 문화선도산단 조성 본격화...삼성중공업-한화오션과 '거제형 모델' 만든다 (이투데이) <https://zrr.kr/szi6d3>

거제시가 조선업 경기 회복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과 협력하여 문화와 정주 기능을 갖춘 '거제형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착수한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노동자 복지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2027년 지정을 목표로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해짐. 거제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조선소 노동자와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Developers moving on FSRUs to hit 2028-2030 LNG supply boom, Fearnleys says (TradeWinds) <https://zrr.kr/Bz1zmp>

선박 중개업체 Fearnleys에 따르면, LNG 공급 물량 급증을 대비하기 위해 FSRU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혼란으로 인해 신규 공급 일정이 2028~2030년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개발사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됨. 글로벌 FSRU 시장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즉시 투입 가능한 선박은 2027년 후반까지 이미 매진된 상태로, 올해 상반기에만 6건의 FSRU 용선 계약이 체결되는 등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향후 1년간 최소 1척의 신규 FSRU 발주와 10건 이상의 LNG 운반선 개조 프로젝트가 예상되며, 현재 40~50개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FID)을 앞두고 있으나 2032~2034년경에는 FSRU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해짐.

Shell becomes Vietnam's leading LNG supplier (Upstream) <https://zrr.kr/55imOT>

PetroVietnam Gas(PV GAS)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LNG를 수입하기 위해 Shell Eastern Trading과 장기 매매 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PV GAS가 베트남 최초로 실시한 LNG 장기 구매 입찰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Shell은 투명하고 경쟁적인 국제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전해짐. Shell은 지난 2023년 베트남 Thi Vai LNG 터미널의 시운전을 위한 첫 화물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베트남이 안정적인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알려짐.

IEA sees weaker gas demand on back of tight LNG supply (Upstream) <https://zrr.kr/KO4nO3>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LNG 공급 차질의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전년 대비 0.5% 감소할 전망이다. 해당 전쟁으로 인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LNG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석탄 등 타 연료로의 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짐.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이 점차 재개되고 있으나, 카타르 라스라판 터미널의 피해 복구 지연 등으로 인해 글로벌 LNG 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정성이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